2005

- 2004



- │ 1기 공감 정기 자원활동가 활동 시작
- | 시각장애인 지하철 추락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승소
- | 국제결혼 중개 구조 실태 베트남, 필리핀 현지조사
- Ⅰ 변협 노인학대 예방 매뉴얼 작성(~2006 발간)
- │ 아름다운재단 내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으로 활동 시작
- 1 제1차 공익단체 변호사 파견지원 사업 시작
- 이주노동자,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주여성. 성매매피해 여성, 장애인을 위한 법률 지원

2018

- | 미군 기지촌 '위안부' 국가배상청구 항소심 증소
- 1 염전노예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승소
- Ⅰ 친족 성폭력 피해 이주여성 고소대리 사건 항소심 가해자 유죄판결



2017

- Ⅰ 월성 원전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승소(1심)
- | 법률대리한 삼표동양시멘트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 복직
- | 이주노동자 주거권 개선을 위한 연구 조사 및 법제 개선



2016

I 정신병원 강제입원제도 위헌제청신청 사건,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 장애청소년에 대한 경찰 위법수사 책임 묻는 국가배상청구소송 승소(1심)

|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 조사





인사발	
공감이 15주년을 맞습니다	4
여는 글	
다시 15년 후를 꿈꾸며	6
공감 이야기	
15년 공익변호사의 길	8
공감의 활동	
숫자로 보는 공감	10
성과와 과제	12
 여성인권	14
 장애인권	19
│ 이주·난민	24
빈곤·복지	28
국제인권	33
성소수자	37
 취약노동	42
공익법 일반	46
l 공익법 교육·중개	50
공감 15년 주요 소송 및 제도 개선	54
축하 메시지	
공감 15주년 축하합니다	58
공변 이야기	
염형국 변호사와 김지림 변호사의 15년 평행이론	62
세상에서 제일 바쁜 공익변호사 황필규 변호사의 하루	66
기부회원을 만난 순간	
15년간 함께했습니다	68
함께하는 사람들	
이사회	72
구성원	74
기부회원	76
공감 살림살이	
한 눈에 보는 2018년 공감 살림살이	80

공감이

15주년을 맞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 전수안

힘겹게 꾸려온 날을 생각하면 벌써 15년인가 싶지만.

그 사이 이루어 낸 일을 생각하면 겨우 15년인가 싶기도 합니다.

공감은 공익변호사 단체입니다.

본연의 인권운동 법률가 단체며.

가장 낮은 곳의 서민들과 함께 끌어안고 뒹굴며 슬픔을 나누는 가슴 따뜻한 법률가 단체입니다.

경찰이나 검찰, 법원에 가기 전에는 법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실망하고 절규할 때,

현장에서 목소리와 힘을 보태는 활동가 단체이기도 합니다.

하느님은 부자가 천국 문을 통과하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 뚫기만큼 어렵다 하셨다지만,

이승에서는 힘없고 가난한 사람이 그 많은 장벽 하나하나를 통과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 중에도 바늘귀만큼 통과하기 어려운 문이 편견의 문입니다.

한 번이라도 그 문 앞에 서 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할 것인가, 편견의 문을 통과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한 걸까요.

많은 사람이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 몸피를 줄이고 걸친 옷을 벗어보고 하면서 애쓰는 동안,

애쓰다가 실패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동안.

'우리 저 문을 한번 부숴 봅시다. 문을 부수고 당당히 들어갑시다'라고 선동한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흑인으로 첫 대법관이 된 서굿 마샬(Thurgood Marshall)이 이렇게 말했다지요.

"편견의 문을 통과하는 유일한 길은 그 문을 부수는 것이다."

한국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그 일이야말로, 공감이 하고 있는 일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과 단체가 그 일에 헌신하였지만,

법률가로서 그리고 혼자가 아닌 여럿의 법률가가 함께하는 단체로서는

처음으로 그 일을 시작한 것이 공감이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리고 고맙고 또 고맙게도 이런 생각에 공감해 주신 분들이 있어.

지난 15년간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후원자 여러분이십니다.

공감이 한 일은 모두 공감 후원자께서 해내신 일과 다름없습니다.

후원자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공감의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공감이란, 공익변호사들의 단체이자 공감에 공감하신 후원자들의 단체입니다.

열악한 사무실에서 적은 월급으로도 공감 구성원들의 심장과 맥박이 멈추지 않고 고동칠 수 있도록.

부디 후원자 여러분의 뜨거운 숨결을 저들에게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김수환 추기경님의 선종 10주기였습니다.

감히 추기경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으로 공감의 정신을 대변하고자 합니다.

"나의 생각을 지배한 가장 큰 주제는 인간이었습니다.

격동기를 헤쳐 오면서 가난하고 고통받는 그래서 약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편에 서서

그들의 존엄성을 지켜주려고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평생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고 인간으로서 대접받고 인정받는 사회가 되길 바랐습니다.

인간은 누구든 어떤 모습이든 절대적으로 존엄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고 있나요?"

지금까지의 15년처럼 앞으로도 '공감이 있어 참 다행이다' 그리 생각하는 존재가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법률가가 인권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라고 믿는 시민의 상식은 언제나 옳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15년 후를 꿈꾸며

"너무 조급하지 않게 확실히 잘 할 수 있는 영역을 꾸준히 개척해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공감이 우리 사회에서 유일한 공익법률사무소이기 때문입니다. …

이 곳이 이후에 생길, 많은 공익법률사무소의 롤모델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지역에 공익법률사무소가 만들어질 기반을 다지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0년, 아니 그 이상 살아남으셔야 해요!"

『공감 다섯 살. 참 고맙습니다』 47쪽

10년 전의 책자를 펼쳐보았습니다.

2009년, 공감이 5주년을 맞았을 때 공감 활동을 평가하는 간담회에 오신 분들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께 여기 살아남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단순한 생존을 넘어, 잘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 쉼 없이 나아갔으며,

서울이 아닌 곳에서도 공익변호사가 일할 수 있도록, 제2의, 제3의 공감이 생길 수 있도록,

후배 공익변호사의 자립을 도와가며 길을 열어가며 여기까지 왔다고 보고합니다.

이제 공감은 만들어진 때와는 달리 한국의 유일한 공익변호사단체가 아닙니다.

전업 공익변호사단체가 여럿 생겼고, 자신을 '공변', 공익변호사로 설명하는 변호사가 백여 명이 넘어갑니다.

일하는 주제도, 변호사들도 다양해졌습니다.

공감이 시작할 때 상상했던 모습을 뛰어넘는 변화입니다.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공감은 우리 사회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끈질기게 활동해왔습니다.

2018년 한 해만 돌아보아도, 제주 예멘 난민이나,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 2차 피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애타는 죽음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공감은 한 해가 아니라 초창기부터 십여 년이 넘게 이들과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곁에서 인권을 옹호하고

법정에서 변론으로, 때로 국회에서 입법운동으로 그 목소리를 대변했습니다.

그리고 더디지만 조금씩 성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공감이 여성, 장애인, 이주민과 난민, 성소수자, 취약노동, 국제인권, 빈곤과 복지, 공익법 교육과 중개 영역에서

지금까지 만든 성과 중 중요한 것을 추려서 이 책자에 담았습니다.

덧붙일 필요도 없이, 이 성과는 인권의 당사자, 인권활동가, 인권사회단체, 다양한 변호사 그룹과 연대하여,

그리고 이 모든 활동을 뒷받침해 주신 기부회원들과 함께 일군 성과입니다.

공감의 자원활동가였고 지금은 기부회원이 되신 분이 공감은 자신의 '별자리'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부회원께서 지켜보신다고 생각하면 어깨가 무거워지지만,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힘이 나기도 합니다.

별자리라는 호명은 더없이 과분하지만 한편으로 그에 부끄럽지 않은 단체가 되고 싶기도 합니다.

고시원이나 쪽방 화재처럼 누구나 알지만 공감 15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도.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OECD 가이드라인을 위반했을 때 하는 진정이나

HIV 감염인의 난민신청같이 시민에게 생소한 문제도.

인권의 경계를 확장하는 일이라면 진전이 있을 때까지 계속하고 싶습니다.

인권과 법을 다루는 비영리단체로서 한국 사회에서 그리고 국제 사회에서까지 제대로 활동하고 싶습니다.

공감은 15년째 꿈을 꿉니다.

그리고 공감은 여러 사람의 꿈을 담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소수자와 약자의 꿈.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기부회원의 꿈.

두 개의 꿈을 연결하는 활동으로, 지금, 여기에, 다른 세상,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공감의 꿈.

이 모든 꿈을 담는 틀로서의 공감이 꿈틀거리며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2019년 4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올림

15년

공익변호사의 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2003년 사법연수원 2년 차 때 공익변호사가 되기로 마음먹고 하고 싶었던 일은 참여연대에서 주로 해온 **권력감시와 사법감시** 일이었다.

사회가 정의롭고 투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었기에 그 일에 동참하고 싶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2003년 여름 참여연대를 찾아갔지만. **보기 좋게 퇴짜를 맞았다**.

당시 상근하던 변호사가 계셨는데 추가로 상근변호사를 뽑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당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로 계셨던

박원순 서울시장님께 무턱대고 메일을 드리고 찾아뵈었다.

그때 박원순 이사님은 놀랍게도 처음 대면한 사법연수생에게

"아름다운재단에서 같이 일해 볼래요?"라고 말씀해주셨고,

그렇게 2004년 1월 공감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때 공감에서 내게 맡겨진 일은 법률지원을 받지 못하는 작은 공익단체에 파견되어

그곳에서 필요로 하는 법률업무를 처리하는 일이었다.

처음 파견된 곳은 장애인단체 1곳, 장애인시설 1곳, 성매매피해여성지원단체 1곳이었다.

처음 장애인을 만나고, 처음 장애인시설에 방문하였으며, 처음 피해여성들을 만났다. 생각지도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었지만, 그래서 더 가슴 뛰고 보람되었다. 렇게 공감에서 만 15년을 꽉 채웠다.

지난해 2018년 법원의 사법농단과 관련 특별법 입법 활동을 하고, 법관 탄핵의견서를 작성하였다.

처음 공익변호사를 꿈꾸었던 2003년 생각했던 일들을 15년이 지나 하게 된 것이다.

간절히 원하는 일은 어떻게든지 하게 되나 보다.

그런데 15년 동안 공감에서 해온 소수자·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소송, 제도개선, 연구조사가 (의도하지 않았고 결과적이긴 하지만) 좀 더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란 생각이 들었다.

우연히(혹은 운 좋게) 아름다운재단에서 일하게 되고,

우연히 인권단체에 파견되고,

우연히 사람들과 인연 맺으면서

인생은 의도하고 필연적인 만남·활동이라기보다는 **의도하지 않은 우연의 연속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인생이 그러하기에 자기가 원한(혹은 의도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거나 의기소침할 필요는 없지 싶다.

아

으로 15년 후에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상상해본다.

통일한국 평양 땅에서 공익변호사 사무실을 열고 그곳의 사회적 약자들을 돕고 싶단 생각을 해봤다.

그렇지만 지난 15년처럼 앞으로의 15년도 **내가 의도한 대로 아마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좋은 우연, 좋은 운이 내게 올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노력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단언할 수 있는 건 공감의 15년 후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처음 공감을 시작했을 때보다 훨씬 창대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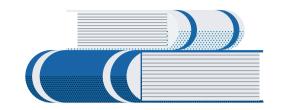
시작은 미약했으나 따뜻한 손길들 그리고 뜨거운 열정들이 모여 지금의 공감의 모습이 되었기에…….

공감을 아껴주시는 기부자님들과 함께해주시는 활동가 분들이 있는 한

공감의 15년 후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따뜻한 모습일 것이다!!**

숫자로 보는 공감





공익법 교육·중개

공익소송

공감 홈페이지 **'함께하는 공익소송'** 신청 사건

1,771^건

공익소송

576²¹

17th 1,252th 인권법 캠프

공익변호사를 꿈꾸는 청소년 모여라 청소년 행사

15[₺]

355g

자원활동가

28^扑

577_g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19차

185_B

사법연수원 실무수습

57_g

공익변호사 라운드테이블

제도 개선

연구조사/실태조사 61건

20_h 800_g 토론회·심포지엄의 주최/주관/발표/토론 **284**건 11_g 주제별 법제도 개선활동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 535_건 Ⅰ 공익소송은 소송, 진정 등 국내외의 권리구제절차에서 공감이 개인이나 단체를 대리한 사건을 모두 포함했습니다. 공익/인권법 교육 │ '공익소송', '제도 개선'은 2017년까지, '공익법 교육·중개'는 2018년까지의 통계입니다.

성과와

과제

可為但是



이주여성 인권

2007~2009

- 국경을 넘은 여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지키다

공감은 2004년 활동 초기부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 변호사를 파견하여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이주한 여성의 법률지원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변호사의 개입이 거의 없었던 이주여성의 인권 영역에서 국제결혼 중개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와 연구, 입법운동을 했고, 국제결혼 중개와 한국 정착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과 폭력의 피해자들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공익소송을 수행하고. 이주여성의 체류권, 성원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지원 활동을 했습니다.

2005 국제결혼 중개 시스템 현지조사 및 국제결혼 중개 구조 개선을 위한 토론회

2005~2012 국제결혼 중개구조 개선을 위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을 위한 활동 성 · 인종 차별적인 국제결혼 광고에 대한 '선의의 파파라치' 캠페인 진행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2006

2007 지방자치단체의 농촌 총각 국제결혼 비용지원사업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손해배상청구 및 양육자변경청구 일부 승소

한국인 불임 부부에 의해 대리모로 이용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2008 한국인 남성의 정신장애 사실을 은폐한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승소

2013 국제결혼 중개업자의 알몸 신체검사 강제추행죄 유죄 판결

2014 시부의 성폭력 피해입은 결혼이주여성 혼인취소소송 공동대리인단



공감의 활동



폭력과 착취에서의 자유, 여성이 인간으로 사는 출발점





굳건한 젠더규범과 젠더권력 차이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과 착취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

여성이라는 소수자 집단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공감은 장애가 있는 여성, 아동, 이주여성, 성매매 상황에 있는 여성 등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여성의

성폭력, 인신매매, 성착취 등 모든 종류의 폭력 피해가 법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피해자를 지원하고, 나아가 피해자를 지원하는 활동가와 상담자를 지원하며,

입법의 공백이 있는 부분의 제도개선 활동에 힘쏟고 있습니다.

2006	장애여성 성폭력 상담 가이드북 공동 제작

2006 예술흥행(E-6) 비자를 통한 성산업으로의 이주여성 유입 실태조사 2008 군 내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변호인단

(항명 혐의로 형사재판받은 스토킹 피해자 무죄 판결 확정)

2008~2014 장애인 성폭력 상담원 법률교육

2010 장애인 성폭력 사건 쟁점 해결 프로젝트-장애여성 성폭력 판결 분석(1차)

2010~ 안전한 이주 보장을 위한 '인신매매 범죄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활동

2011 아동성폭력 판례 분석 연구 참여

2012 장애인 피해자 사법절차 참여권 연구팀 활동(성폭력범죄 피해아동과 장애인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2013~2015 단순성매매 처벌조항 위헌법률심판 대응 및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법제 개선을 위한 활동

2014 장애인 성폭력 판례분석 프로젝트(2차)

<장애인 성폭력 무죄, 그럼에도 불구하고-유죄판결을 위한 활용서> 제작, 배포

2015 예술흥행비자(E-6) 소지 이주여성의 인신매매 피해 해결을 위한 정책 네트워크 활동

인신매매 대응 정책 비교연구를 위한 일본 현지 조사

2016 이주여성 농업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성폭력 실태조사

2016 성매매업소 업주에게 상습 강제추행 피해 입은 여술흥행(E-6)비자 소지 이주여성 대리하여

가해자 유죄 판결

2018 미국 기지촌 '위안부' 국가배상청구 항소심 승소

2018 친족 성폭력 피해 입은 필리핀 여성 대리하여 가해자 유죄 판결

직장 내 성희롱과 2차 피해의 방지, 여성이 노동할 수 있는 환경의 최소요건

#MeToo

직장 내 성희롱이 한국의 법제도로 들어온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성노동자는 여전히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고도 침묵하거나.

신고하고도 2차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공감은 노동자단체, 여성인권단체, 법률가단체와 연대하여,

이러한 현실을 드러내는 실태조사, 법제도 개선, 피해자를 지원하는 공익소송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11 여성노동자의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2012~ 직장 내 성희롱 실태 개선을 위한 법 개정 활동 및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법률지원

2013 국가인권위 발주 '진료과정의 성희롱 실태조사와 예방기준안 마련' 연구

2014~현재 르노삼성자동차 직장내 성희롱 2차 피해에 대한 민형사 법률지원



인신매매 일본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쟁점 토론회(2016)

여성의 임신중단, 보편적인 인권의 의제로

한국 사회에서 낙태죄는 논쟁적인 주제이지만.

인간의 보편적인 인권을 규정한 국제인권규범은 여성의 임신중단을 권리로서 다루고 있으며

국제인권기구는 한국의 인권상황을 심사하면서 여성의 임신중단을 비범죄화하라고 여러 차례 권고했습니다.

여성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특별한 사건에 관해서 자신과 분리되지 않은 존재인

태아의 생존과 출생 이후의 삶까지 고려하면서 임신, 출산 또는 임신중단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성폭력 피해자, 10대 청소년, 장애를 가진 여성 등 임신과 출산을 둘러싼 다양한 상황에 처한 모든 여성들이

평등권, 재생산건강, 모성보호를 받을 권리의 침해 없이 자신의 결정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공감은 형사소송 변호, 헌법소송을 대리하고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3~2014 낙태로 기소된 여성 공동변호인단

2013~2014 낙태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연속 포럼 공동 개최

2013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낙태 규제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자문

 2017
 모자보건법 제14조 해석과 개정방안 토론회 발표

 2017~
 낙태죄 위헌소원 공동대리인단(헌법불합치 결정)





장애인권



장애인차별:

2005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소송을 통한 구제

장애인들은 고용, 교육, 이동, 접근, 서비스, 사법 분야 등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장애를 이유로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 중입니다. 공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활동부터, 법 시행 이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형사고발, 차별구제소송 등 다양한 법률 활동을 벌여 왔습니다.

서울시 상대 청계천 접근권 차별에 대한 구제소송



2006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민관기획단 활동
2006	보험사 상대 장애아동 여행자보험가입거부에 대한 구제소송
2006	시각장애인 역사추락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2009	청각장애인 교수 해임에 대한 명예훼손 형사변론
2010	보험사 상대 지적장애인 보험가입거부에 대한 구제소송
2011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법 외국사례 연구 수행
2012	시청각장애인 참정권 차별에 대한 구제소송
2013	시각장애인 웹접근성 침해에 대한 구제소송 승소
2014	서해대학 직원 진급차별에 대한 장애인차별구제소송 승소
2014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한국 심의 참가
2015	시각장애인 용산역 추락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2016	지적장애청소년 위법수사 국가배상청구소송 승소
2017	경북 상주 영구임대아파트 주차장 접근권 차별 구제소송 조정합의
2018	난독증 학생 차별구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2018	지체장애인 놀이기구 탑승제한 차별구제 합의
	2006 2006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4 2015 2016 2017 2018



장애인학대:

법률지원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제도화

장애인, 특히 지적장애인은 학대와 착취에 매우 취약합니다.

지난 2017년 장애인에 대한 학대, 착취를 없애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립되었습니다.

공감은 장애인들에 대한 학대 및 착취에 대한 법률지원 뿐 아니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립을 위한 제도개선활동.

그 밖의 권리보장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13 노동력 착취 지적장애인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1
-------------------------------	---

2014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활동 및 하위법령 작업

2016 지적장애 청소년 위법수사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승소

2016~2018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 대상 인권교육

2017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장애와 인권 법률매뉴얼(공동집필) 발간

2017 장애인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2018
 염전노예 국가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승소

 2018
 노동력착취 지적장애인 가해자 형사고발







장애인시설 인권침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탈시설정책'으로 전환

장애인시설에서의 인권침해 문제는 공감 초창기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감은 이러한 시설에서의 인권침해를 고발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시설 내 인권침해만 문제가 아니라

원하지 않는 시설 거주를 장애인에게 사실상 강요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는 활동에 꾸준히 함께해 왔습니다.



2004 지적장애인시설 교남소망의 집 복지시설 성	생활 장애인 인권보장내규 작업
-----------------------------	------------------

2005~2012 전국의 인권침해 장애인시설 조사 및 고발, 진정 참여

2005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생활시설 생활자 인권보장 방안 연구 참여

2010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거부에 대한 취소소송

2011 도가니대책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활동 참여

2012 국가인권위원회 거주시설 장애인 자립생활 욕구 및 지원방안 연구 참여

2014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구 이사진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승소

2016~2019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공익이사 활동

2017 자림재단 임원해임명령 취소소송 및 법인설립허가취소소송 피고 대리 승소 확정

2018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활동

정신장애인:

강제입원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내다



우리 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의 지위는 장애인 중에서도 가장 열악합니다.

아무도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신장애인들은 과도하게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되어 있고.

지역사회에서도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인도 인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정신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권침해와 차별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공감은 우리 사회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맞서 싸우고

정신장애인이 지역에 함께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2007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 법제 개선방안 연구 참여

2007~2008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작업 참여

2008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 인권개선을 위한 외국 사례 및 선진모델 구축 연구 참여

2009 지역사회 정신장애인 집단따돌림 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위 활동

2010~2012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정신보건기관 운영자·종사자 대상 인권강사 양성과정 참여

2011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 연구 참여

2016 정신병원 강제입원 헌재 공개변론 및 헌법불합치 결정

2016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 제정 활동

2016 정신장애인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해외사례 공동연구

2017 정신병원 강제입원 피해자 국가배상청구소송

2018 서울시 정신장애인 지역통합지원조례 제정

2018 정신건강복지법 개정활동_정신병원 입원에 대한 법원심사방안



정신장애인 강제입원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2014)

01주-난민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 - 난민/무국적자



한국은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2012년 난민법을 제정함으로써

자국에서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외국인에게 보호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난민인정률이 1%대에 머무는 가운데 많은 난민들은

한국에서 난민인정을 받지 못하고 강제송환의 위협을 받으며 장기간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고, 특히 장애인, 아동, 여성, 성소수자 등 소수자 난민은 이중의 취약성으로 인해 더욱 고통 받고 있습니다. 공감은 2005년 난민불허결정취소소송을 대리한 것을 시작으로

국내 외 난민인권단체와 연대하여 난민인권을 옹호하는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2006	버마민주활동가 9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 승소
2007	법무부 난민지침에 대한 정보공개불허처분 취소소송 승소
2008	난민인권네트워크 결성, 난민법 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조사
2009	난민법 제정안 발의
2010	버마민주활동가 8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 승소
2012	난민법 제정
2013	취업을 이유로 한 난민신청자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승소
2015	무국적자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2017	무국적 판정절차 도입을 위한 비교법 연구조사



제 3회 난민영화제 부스 참가(2017)



'단기순환 비정주화 원칙'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주노동자

한국의 이주노동자 송입제도 하에서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자이기 이전에, 일할 사람이 필요한 사업장에 공급되는 인력으로 취급됩니다.

이주노동자는 젊음을 바쳐 한국에서 일해도 가족을 데려오지 못하며 정착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정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입국이 허용되며.

이후의 체류연장이나 재입국 또한 해당 사업장의 필요에 달려 있습니다.

사업장을 옮기려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입증해야만 합니다.

위와 같은 송입제도 하에서 이주노동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그 지위가 매우 취약해져서 각종 인권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장 변경 제한 등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정부가 외국 인력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에 관한 재량에 속한다'는 장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사람이 아닌 인력으로만 취급되는 노동자가 있다는 것이 한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고용허가제하 사업장변경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

이주노동정책은 이제 위 물음에 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7

2008	이주노조 지도부 표적단속 및 강제추방에 대한 헌법소원
2011	파업을 이유로 구속된 베트남 노동자 형사변론
2013	지구인의 정류장 파견 활동
2013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3	선상폭행으로 사업장변경을 요구한 선원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승소
2014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지급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2016	'이주노동운동의 현 단계 진단과 향후 도약을 위한 모색' 토론회 개최
2016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조사
2016	이주노동자 숙식비 청구소송 승소
2017	이주가사노동자 인권 실태조사 및 인권보장 연구조사

이주민의 인권과 출입국관리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법원의 영장 없이도 무기한으로 구금될 수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상 가장 두텁게 보장되는 신체의 자유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라는 행정적 필요에 의해 매우 쉽게 제한되어 버립니다.

인신구속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권리가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민과 차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재의 주류적 입장입니다.

그러나 한국국적이 없다는 사실, 혹은 출입국관리의 대상이라는 사실만으로

개인의 구체적 권리에 대한 차별적 제한이 정당화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감은 소송, 공론화와 입법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그러한 전제를 타파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7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2008	이주정책개선모임 결성,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위한 연구조사
2009	김해 외국인 상점 불법적 출입국단속 국가배상 소송 승소
2009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발의
2014	이주아동권리보장법 제정안 발의
2015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사업장출입조사권을 포함한 정부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대응활동
2016	'이주민의 기본권 재구성' 공동집담회 개최
2016	출입국관리법상 인신구속제도 개선 및 인신보호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17	영사접견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소송 승소
2018	출입국관리법 및 인신보호법 개정안 발의
2018	과거 위명여권 행사를 이유로 한 결혼이주여성 귀화불허처분 취소소송 승소
2018	이주민의 건강보험 차별을 강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집이 없다고 주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

201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소한의 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에서

생활하는 인구는 26만 여명으로 추산됩니다.

주거는 사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이자. 사회생활을 위한 베이스캠프로서

당장 몸을 뉘일 곳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이 없는 사람들은 주거권뿐만 아니라 다른 권리까지 제한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비닐하우스 거주가 불법이라는 이유로 주민등록이 거부당한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이 그러한 경우입니다.

누구나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는 공공역사로부터 홈리스들을 퇴거시키려는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2004	노숙인 다시서기 지원센터 변호사파견

비닐하우스촌 주소지 전입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 2007

노숙인쉼터 설치운영 신고수리 거부처분 취소소송 2009

2011 서울역 홈리스 강제퇴거 대책위원회 활동

2013 홈리스 정기 법률상담

2014 홈리스 유인 요양병원 형사고발

홈리스 배제 서울로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대응활동 2017





누구를 위한 개발사업인가 - 공공개발사업과 강제퇴거



주거권은 집이 없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발사업으로 살고 있던 집을 잃는 경우에도 문제가 됩니다.

개발사업의 목적은 본디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 등 공공복리 증진에 있습니다.

그러니 지역주민들이 개발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는다면 사업은 정당성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감은 용산참사 당시 가장 먼저 달려가서 형사 법정에서 철거민들을 변호했고.

헌법재판소로부터 검찰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거부처분 위헌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후 강제퇴거금지법 제정활동 등 법제개선을 위해 애썼습니다.

그러나 경제활동으로 임차료를 창출하는 세입자와 실거주자의 안정적 주거와 생계유지보다

소유자와 건설업계의 개발이익이 우선시되고 있는 현실은 크게 바뀌지 않아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2008	재개발구역 세입자 수거이선비 정구소송
2006	세계발표를 제합시 표시의원의 경투꼬리

2009 용산참사 철거민 형사사건 공동변호.

검찰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2010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활동







부양을 받을 수 없음을 증명하라

- 사각지대의 규모가 보장을 받는 범위에 맞먹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제금융구제사태로 인한 대량실직을 계기로 빈곤은 개인이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임이 드러났고.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잔여주의에 대한 강조와 남용가능성을 처음부터 차단하려는

엄격하고 경직된 요건이 가져온 낮은 보장수준과 넓은 사각지대로 인해.

빈곤은 여전히 개인과 가족의 생활을 파괴하는 재앙으로 남아 있습니다.

공감은 2009년부터 기초생활보장 권리찾기행동에 참여한 수급가구 실태조사를 비롯하여.

2010년 간주부양비로 인한 생계급여변경처분 취소소송.

2012년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실무관행과 지침에 대한 인권위 진정.

2017년 다니엘 블레이크소송 등 우리 모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제도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9 기초생활보장 권리찾기행동의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 실태조사

2010 간주부양비로 인한 생계급여 변경처분 취소소송

2012 기초생활수급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하는 지침 및 실무에 대한 인권위 진정

201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부양의무자기준과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국회 토론회 개최

2017 '다니엘 블레이크(조건부 수급자 사망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2018 가족 소유 자동차 사용을 이유로 한 부정수급 형사사건 변론



'아동 최선의 이익의 원칙'이 관철될 수 있도록

아동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함에도, 스스로를 대변하기 어렵다 보니

아동복지에 관한 제도들은 아동의 입장과 인권보다는 아동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우선하기 쉽습니다.

공감은 부모의 양육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체류자격이 없어 현재와 미래를 저당잡힌 미등록 이주아동 등 취약한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활동해왔고,

입양특례법 개정을 통한 아동복지의 공공성 강화와 미등록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을 비롯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반면 거의 모든 국제인권기구에서 도입을 권고할 정도로

시급하고도 기초적인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이 번번이 좌절되는 한계에 부딪쳐 왔고.

미등록 이주아동은 여전히 정책 부재의 사각지대에서

장래에 대한 희망이 꺾이고 숨을 죽인 채 성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을 외면하는 사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공감은 아동 최선의 이익의 원칙이 관철될 수 있도록 끝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2011 입양특례법 개정활동

2013 고등학교 재학 중 추방된 몽골학생 복교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활동

대안적 아동복지체계 마련을 위한 활동 2015

- 아동복지의 공공성 강화 연구를 위한 아동인권포럼 결성

- '아동보호 전달체계 개편의 쟁점과 과제: 공적 책임 강화와 원가정 보호 실현을 중심으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2016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마련을 위한 활동

-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신고' 캠페인

- 출생 미신고 아동 법률지원

2017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활동













국경을 넘은 네트워크 구축과 인권옹호활동

공감은 국내 인권 이슈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인권 이슈, 타국의 인권 현안에 대하여 국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공동의 해결을 모색하는 활동을 지속해왔습니다.

특히 아시아 내 난민인권 문제, 사법접근권 등에 대해서는

견고한 공익인권변호사·활동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적 교류, 교육, 법제개선 등 현안 개입 등의 활동을 수행해왔고,

전 세계와 아시아의 느슨하고 넓은 인권·프로보노 변호사들의 네트워크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공감은 앞으로 전 세계의 경험 많은 공익인권변호사들의 네트워크,

이주, 난민, 기업인권 등 영역별 인권변호사 네트워크를 구성, 유지, 강화하면서

실질적인 국제 공익인권변호사 네트워크 활동을 더욱 확대시켜나갈 계획입니다.



2008~	아태난민권리네트워크 공동 설립 및 의장 단체 활동, 아태지역 난민 인권 옹호 활동

2008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 외교훈련프로그램(DTP) 아시아 이주인권활동가 대상

'이주와 국제구제메커니즘', '이주와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교육

2009~ 영국 법원 및 호주 법원 탈북자 난민신청사건 전문가 의견 제출 및 법원 출석 전문가 증언

2010~ 인권에 기초한 사법접근권 아시아 컨소시엄 공동 설립 및 의장 단체 활동.

아시아 지역 사법접근권 확장을 위한 옹호 활동

2014~ 글로벌 프로보노 포럼, 아시아 프로보노 컨퍼런스 등 참가,

아태무국적네트워크, 포티파이라이츠 등 국제 인권단체 자문

2017~ 대만 난민법 입법운동 과정에서의 전문가 자문





필리핀 노조지도자 대상 교육(2014)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해결을 위한 국제인권활동

공감은 2005년 초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현지 인권침해에 대한 국내소송 가능성에 대한 연구조사를 시작으로 주로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진출 한국기업들의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문제제기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중국 등 동아시아, 인도 등 남아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더 나아가 온두라스 등 남미에 이르기까지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현장에서 현지조사를 수행하였고.

각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국내 연락사무소, 국가인권위, 유엔 특별절차 등 다양한 인권구제 메커니즘을 활용해왔습니다.

공감은 한정된 자원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외적인 네트워크 특히 해외 법률가들의 네트워크를 구성. 강화하고

체계적인 사례관리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기존 국내 네트워크의 내실화에도 주력하고자 합니다.

2005~	해이지추 하구기어	하구기바 다구저기어이	이궈치해 혀지조사 및 및 [터리

(과테말라, 라오스, 멕시코, 미얀마, 온두라스, 인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필리핀 등)

2009 한국기업 미얀마 가스개발사업에 관한 국가인권위 진정

(미국 하버드로스쿨 국제인권클리닉 공동대리)

2013 한국기업 인도 제철소건설사업에 관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국내연락사무소 진정

(투자자 소재 노르웨이, 네덜란드 국내연락사무소에 공동 진정)

2016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기업 본사 소재 영국 반부패특검 진정,

투자자 소재 노르웨이연기금 윤리위원회 진정

2018 한국기업 건설 라오스댐 붕괴사건에 관한 유엔 기업인권 워킹그룹 진정

(개발, 환경, 평화, 기업인권 단체 공동)







국제인권기구 & 국제인권기준 기반 인권옹호활동

공감은 국내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엔 인권조약기구 등 국제인권기구에서 한국의 인권이슈에 관한 권고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국제인권기준이 국내에서 제대로 알려지고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조약기구의 한국 심의 시

NGO보고서 제출 등의 활동, 국제인권법의 법제개선, 소송에서의 활용,

다양한 공간에서의 국제인권법 연구조사 및 교육 등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공감은 기존의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감과 동시에

국제인권법이 국내 입법, 사법, 행정 전 영역에서 주류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활동을 발전시켜나갈 계획입니다.

2006~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유엔 자유권위원회, 사회권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장애인권리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등 유엔 조약기구의 한국 심의시

NGO 보고서 공동 집필 및 현지 활동

2006~ 유엔 이주민 인권,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옹호자, 유해물질, 기업인권 등

특별절차 보고관·워킹그룹의 한국 공식방문 대응 및 NGO 보고서 공동 집필

대한변협, 유엔 인권정책센터 주최 유엔 인권권고 이행을 위한 심포지엄 2012~

'유엔 인권권고 이행 메커니즘 확립 방안', '국제인권규범 이행을 위한 국회의 역할' 등 발표

이화여대, 서울대 로스쿨 국제인권 클리닉 강의 2013~

2016~ 서울지방변호사회 주관 법률가를 위한 국제인권법 교육 기획·강의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대한민국 심의대응 시민사회 참가단(2018)

성소수자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 규범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차별금지사유에 '성적 지향'이 명문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성적 지향'이 무슨 의미인지도 잘 알려지지 않은 때부터.

성소수자의 인권이 법의 영역에서 어떻게 만나고 부딪히는지 논의가 시작된 때부터.

공감은 성소수자 인권단체와 긴밀하게 연대하면서 성소수자 인권 현장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였습니다.

2007년 법무부가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서 '성적 지향'이 삭제되고.

2011년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2014년 서울시민인권헌장, 2018년 충남인권조례,

2018년 대한민국헌법의 개헌 국면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 규범을 명문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4	국가인권성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성적소수사 인권 기소연왕소사 연구 삼아
2007~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2008~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연대활동 시작

2011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 및 서울시 의원회관 점거농성 결합

2014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실태조사' 연구 참여

2014 서울시민인권헌장 폐기 관련 서울시청 점거농성 결합

2018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의견 제출 및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제출



대선 방송토론의 동성애 혐오발언에 대한 항의 액션 (사진 출처: 한겨레, 2017)

군대에서의 동성애 범죄화, 구금시설 및 학교에서의 폭력과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

성소수자들은 군대, 교도소, 학교 등 남녀 이분법적 성별규범으로 구획된 공간에서 더욱 심한 폭력과 차별을 경험합니다.

특히 군형법 추행죄(계간) 처벌조항은 동성애를 범죄화하는 악법으로.

징병제 국가의 성소수자 군인 뿐만 아니라 군인이 아닌 성소수자들까지도

불법적 존재로서 낙인을 찍고, 이들을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세 차례의 합헌 결정이 있었지만.

공감은 군형법 추행죄가 폐지될 때까지 꾸준하게 활동을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구금시설에서의 소수자 인권침해, 학교에서의 괴롭힘 및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해나갈 계획입니다.

2009	트랜스젠더 재소자 처우에 대한 국가배상소송 일부 승소
2010	(구) 군형법 제92조 '계간' 처벌 조항 위헌제청사건 헌재 공개변론
2013	집단괴롭힘으로 자살한 청소년 성소수자 부모대리 손해배상청구 소송
2015	트랜스젠더 징병신체검사 신체등위 3급 판정 및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 취소소송 승소
2016	트랜스젠더 정신병원 강제입원 인신보호 구제청구 인용결정
2017~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위헌제청사건 공동대리인단(심리 중)

혼인평등과 가족구성권 보장

성소수자들은 혼인 및 가족제도에서 오랫동안 배제당해 왔습니다.

공감은 초창기부터 관련 연구자, 활동가들과 함께 차별적인 가족정책에 대한 대안연구.

'찬란한 유언장 행사' 등에 참여해 왔으며.

2013년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의 동성혼 소송의 대리인단으로 참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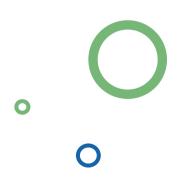
한국에서 혼인평등이 제도화되고 정상가족 중심의 가족정책이 개선될 때까지

앞으로도 꾸준하게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2007~ '다양한 가족형태에 다른 차별 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 참여

2013~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참여

2014 동성혼인 신고 불수리 불복 신청사건(1심 각하, 2심 기각 결정)





난민, HIV/AIDS 감염인 등 이중적 차별과 낙인에 반대하다

HIV/AIDS 감염인이 겪는 인권침해는

질병 자체에 기인한 것보다는 사회적 차별과 낙인에 따른 것이 많습니다.

공감은 2006년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개정 운동을 시작으로

감염인에 대한 편견에 기인한 차별적 정책에 대응하고, 인권침해 사건을 대리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이주와 난민, 성소수자, 감염인 인권이 중첩적으로 교차하는

소수자 난민에 대한 더 적절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위하여

2017년부터 난민·성소수자인권단체들과 함께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를 발족하여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2006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개정 운동

2007 HIV 양성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승소

2009 에이즈치료제 푸제온 강제실시 청구(기각 결정)

2009 원어민강사 HIV 강제검사 위헌소원(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2017~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발족 및 '소수자 난민 권리를 위한 첫걸음 - 무지개는 국경을 넘는다' 발간

2018~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대한 차별적 HIV 검사 요구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퀴어퍼레이드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부스 참가(2018)



불안정한 지위에 놓인 노동자들을 위한 법률지원과 구제소송

비정규직, 간접고용, 특수고용이라는 특별한 단어들이 일상어가 되었습니다.

이미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불안정 노동에 처해있고 그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동법의 보호에서 벗어나 있는 불안정 노동자들은 그 취약한 지위 때문에

노조 결성이나 단체교섭 등의 자발적 개선 노력도 쉽지 않습니다.

공감은 일반화된 불안정 노동의 현실에 발 딛고서 이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0	도시가스 검침원 퇴직금청구소송
2011	택시기사 사납금 강요 손해배상청구소송
2012	학교비정규직 조리사 고용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2013	케이블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 법률지원
2013	재택근무 특수고용노동자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
2014	분신 사망한 아파트 경비원 손해배상청구소송
2014	대학 주차관리 노동자 집단해고 법률지원
2015	호텔 아르바이트 노동착취 고발
2015	편의점 아르바이트 손해배상청구소송
2015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간 임금청구소송
2015	버스 중앙차로 청소노동자 복직 지원
2016	아파트 경비원 집단해고 대응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무효 확인소송
2016	배달앱 노동자 산재보험료부과처분 취소소송
2016	군인공제회 부당전직 취소소송
2017	삼표시멘트(구 동양시멘트) 비정규직 노동조합 손해배상청구소송
2017	학교비정규직 불법파견 진정
2018	직장갑질 119 활동 및 방송스태프 노동조합 법률지원







이중의 차별 속 더욱 소외된 노동자들

노동자 안에서도 소외받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노동자, 이주노동자, 가사노동자, 여성노동자, 중고령노동자, 장애인노동자처럼 연령, 국적, 인종, 성별 등을 기준으로 한 이중의 차별이 소외된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공감은 창립 초기부터 사회의 관심과 제도적 보장 밖에 있는 이들의 곁에서 함께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2006 산업연수생에 대한 부당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 2007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제한 헌법소원 2008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해고 무효확인소송 2010 청소년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및 교육 실태 파악을 위한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청구 2011 청소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따뜻한 밥 한 끼 캠페인 2012 가사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 2013 돌봄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활동 십대 청소년들의 '밑바닥노동' 개선을 위한 면접조사, 노동현장 기획조사 등 2014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 2016 요양보호사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공대위 활동 및 전면 개정안 국회 통과 2016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지급 규정 헌법소원 2017 활동지원사 노동조합의 노조활동 관련 민·형사 소송 2018 장애인노동조합 준비모임 법률지원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복직을 위한 1인 시위(2018)

노동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및 제도개선

취약한 지위의 노동자들이 오늘날 처한 현실은

상당기간 누적된 정책과 법제도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공감은 보다 근원적인 문제들을 직시하고 더 나은 정책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청소년 노동 관련 학생인권조례 제정 활동

꾸준한 연구조사와 캠페인을 펼쳐왔습니다.

2010

2016

한편 소외된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은 참담한 사고를 통해서야 세상에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을 위한 활동에도 함께해왔습니다.

20.0	0-2-0-22 1022- 110-20
2012	현장실습생의 근로자성 인정 및 노동관계법 적용을 위한 법률 개정 활동
2013	영어회화 전문강사 노동권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활동
2014	십대 밑바닥 노동 단행본 출판
2014	반월시화공단 노동자 실태조사, 공단 구조고도화 관련
	'노후거점산업단지 활력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의 문제점과 대안 발표
2015	비정규직 종합대책 대응을 위한 연구조사·캠페인
2015	시멘트업계 불법고용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연구조사
2016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조사단 활동
2016	외식업체 청년 노동자 자살사건 검찰 재조사 요구 및 책임업체에 대한 형사고소
2016	경비원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의무 신설 및 고용안정 아파트에 대한 지원 내용을 추가하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조례(맑은 아파트 조례) 개정안 작성, 개정 조례 통과

노동조합 및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기업의 손해배상·가압류청구 제한을 위한 활동

2017 경비원 일자리 휴무제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활동

2017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컨설팅 사업

2017 직장갑질 119 활동

2018 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진상조사단 활동







민주주의는 풀뿌리에서부터

공감은 창립 초기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인 예산낭비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수단으로 주민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한편, 주민소송 가이드북 「주민소송 사용설명서」를 기획, 발간하여 주민소송이 주민자치의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2005	전남 6개 시군을 상대로 시의회, 군의회 의원들의 해외출장 내역 및 예산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2006	광명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부실시공 책임자들에 대한 주민소송
2006	성북구의회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등 예산남용에 대한 주민소송
2007	청양군 '인공폭포 조성'으로 위법하게 지급된 예산 환수 주민소송
2008	서울 도봉구·금천구·양천구의 위법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반환 주민소송
2009	사례로 살펴보는 주민소송 가이드북 '주민소송 사용설명서' 발간
2012	서울 서초구의 위법한 도로점용허가 무효확인 등을 위한 주민소송







사회적 참사, 피해자들을 지원하다

공감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소식을 접하고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피해 유가족 곁에서 법률지원을 하였고, 세월호 진상규명 위원회 활동,

단원고 기간제 교사 및 민간잠수사를 위한 변론, 세월호 집회 주최자에 대한 형사변론 등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가습기살균제 피해, 메르스 격리, 스텔라데이지호 참사 때에도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위해 다양한 법률지원을 하였습니다.

2014	세월호 참사 현장지원,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법률지원
2015	세월호 집회 주최자 집시법 등 위반사건 형사 변론
2015	세월호 민간잠수사 피해자 의상자 지정신청
2015	세월호 단원고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 소송
2015	세월호 참사 피해자 인권실태 조사보고서 공동작성
2015	메르스 병원 격리 피해자 면담 및 법률지원
2016	가습기살균제 유엔 특별절차 진정



스텔라데이지호 10만인 국민서명 전달 기자회견(2018)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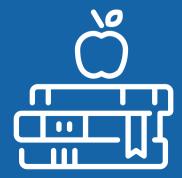
국가와 시장이 아닌 제3의 섹터로서, 그들의 권력을 견제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해 공감은 다양한 제도개선 활동을 벌였습니다.

2014	기부금품모집법상 미등록모금 처벌조항 헌법소원
2014	아름다운가게 등 기부금품모집법위반 사건 형사 변론
2014	밀양 송전탑 건설반대 대책위원회 기부금품법위반 사건 형사 변론
2017	공익법인 개선방안 간담회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 마련
2017	기부금품법 개정안 발의

공익을 위하여

공감은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을 통해 공익제보자를 지원하여 수시 법률상담, 민·형사소송지원을 진행하였고, 군의문사 사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사건,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사건 등을 수행하여 성과를 냈습니다.

2008	공익제보자를 위한 국가배상정구소송
2010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에 대한 헌재 공개 변론 및 위헌결정
2011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위헌에 관한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
2012	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결정 취소소송 승소
2012	긴급조치 피해자 형사재심사건 변론
2013	공장식 축산반대 헌법소원심판청구
2013	탈북자 합동신문 피해자 인신구제청구
2016	인권도시 비전수립 연구 공동 수행
2017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확인소송 1심 승소



공익법 교육·중개사업은 예비 법률가들을 공익인권 분야로 이끌고, 기존 법조인들을 공익인권 단체로 이끌어서 이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작업입니다. 다리를 놓고 서로를 연결하여 법조인들이 공익인권분야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체의 공익인권법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감은 앞으로도 이러한 다리 놓는 작업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공익인권교육을 전파하다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소외되는 사람 없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인식 개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인식 개선을 위한 공익인권교육이 필요합니다.

공감은 공익인권교육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2005~ 공감 자원활동가 제도 운영(현재 28기 정시 자원활동가 활동 중)

공감 월례포럼 진행 2005~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공동으로 국제 심포지엄 '로스쿨과 공익인권법' 개최 2008

2008~ 공감 인권법 캠프 개최

전국 로스쿨 '소수자 인권 실무', '리걸클리닉' 강좌 및 각종 특강 진행 2010~

2010~ 전국 23개 로스쿨 여름·겨울 실무수습 진행

청소년 인권행사 '공익변호사를 꿈꾸는 청소년 모여라' 행사 개최 2011~

공감의 활동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활성화시키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여야 할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공익법 활동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하고.

공익법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2005 서울대 법의 지배센터 'NGO와 법의 지배' 프로젝트 공동 수행

2007 1차 미국 공익법단체 탐방

2010~2016 로펌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익담당 변호사 정기모임 진행

2010 2차 미국 공익법단체 탐방

2011~ 공익변호사 양성을 위한 공익변호사 라운드테이블 진행

2012 변협 변호사 공익활동 지표 개발 연구 참여

2014~ 공익변호사 한마당 행사 개최

2014 재단법인 동천 5주년 기념 공익법 세미나 발제 '한국 공익법운동의 현황과 과제'

2015 공익입법 매뉴얼 작성

2016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개소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을 시행하다

공감은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직접 수행할 뿐 아니라

공익활동을 공유하고 널리 확산하는 활동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공감은 공익변호사 자립지원 신청을 받아 공익단체에서 일하고자 하는 지원자를 선정하고

공익단체에 이들에 대한 인건비(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였습니다.

선발된 공익전담변호사들은 2년 동안 인건비(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이주 난민, 정보인권, 노동, 성소수자, 환경 등 공익단체에서 상근하여 활발한 활동을 벌였습니다.

1기: 2014년 상반기~2016년 상반기

고지운(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신훈민(진보네트워크센터)

2기: 2015년 상반기~2017년 상반기

이소아(광주,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김지현(부산, 부산YMCA 시민권익센터)

3기: 2016년 상반기~2018년 상반기

임자운(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조영신(반월시화공단 노동자 권리찾기 모임 '월담')

4기: 2017년 상반기~2019년 상반기

송지은(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김예원(장애인권법센터)

신지형(녹색법률센터)

5기: 2018년 상반기~2020년 상반기

조영은(청주, 청주노동인권센터)

이은혜(군포, 아시아의 창)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 협약식(2018)



공감 15년

주요 소송 및 제도 개선

[소송]



- 2014 서해대학 직원 진급 차별에 대한 장애인차별구제소송 승소 (최초의 장애인차별시정 판결)
- 2016 정신병원 강제입원 헌법불합치결정
- 2018 염전노예 국가배상소송 승소



- 2009 한국인 불임 부부에 의해 대리모로 이용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손해배상청구 및 양육자변경청구 일부 승소
- 2014 인신매매와 성매매강요 피해 태국여성이 성매매업소 업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일부 승소
- 2018 **직장 내 성희롱 2차 피해자**가 회사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법원 승소

- 2013 한국기업 인도 제철소건설사업 관련 해당 기업과 그 투자자인 노르웨이, 덴마크 연기금에 대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한국, 노르웨이와 덴마크 연락사무소 진정 (조사를 거부한 한국 연락사무소와 달리 노르웨이 연락사무소는 OECD 가이드라인 위반사실이 있음을 확인)
- 2016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기업 본사 소재 영국 반부패특검 진정 & 투자자 소재 노르웨이연기금 윤리위원회 진정
- 2018 한국기업 건설 라오스댐 붕괴사건 관련 유엔 기업인권 워킹그룹 진정







- 2008 재개발구역 세입자 주거이전비 청구소송 일부 승소
- 2009 비닐하우스촌 주소지 전입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승소 (일명 '비닐하우스촌 주소지 찾기 소송')
- 2009 용산참사 철거민 공동변호인단. 검사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 2010 영화 '친구사이' 청소년관람불가 취소소송 대법원 승소
- 2013 대법원지침 외부성기 성형 요건 관련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결정
- 2017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위헌제청사건 공동대리인단(헌법재판소 심리 중)

2006 버마 민주활동가 9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 증소



2014 선상 폭행으로 사업장변경을 요구한 선원이주노동자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증소

2017 영사접견권 침해 국가배상청구소송 승소



이주 - 난민

- 2010 도시가스 검침원 퇴직금청구소송 대법원 승소
- 2015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간 임금청구소송 대법원 승소
- 2017 시멘트 회사의 비정규직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리 결과 노동자 전원 정규직 복직 합의



- 2010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위헌결정
- 2011 **긴급조치 9호** 위헌결정
- 2012 군대 내 가혹행위로 자살한 군인의 유족이 국가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취소소송 대법원 승소
- 2017 월성 원전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확인소송 1심 승소

공감 15년

주요 소송 및 제도 개선

[제도개선]



2005 국제결혼 중개구조 개선을 위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 활동

2006 예술흥행(E-6) 비자를 통한 성산업으로의 이주여성 실태조사와 인신매매피해자 보호법 제정 활동(진행중)

2010, 2014 장애인 성폭력 판례 분석 연구 및 성폭력 피해자 지원자를 위한 연구조사



2011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도가니법)

2015 장애인복지법 개정(장애인권익옹호 제도화)

2016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정신장애인 복지지원 제도화)



- 2011 **아동의 최상의 이익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입양특례법** 개정
- 2016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을 위한 활동(진행중)
- 201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활동(진행중)



빈곤·복지



이주・난민

2012 **난민법** 제정

2013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6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조사와 이주노동자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활동

2017 이주가사노동자 인권 실태조사 및 인권보장 연구조사



성소수자

2007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진행중)

2011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정 (주민발의안 차별금지사유 원안 통과)

2019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 성소수자난민 인권침해 실태조사(진행중)





취약노동

2016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조사단 활동

2016 **요양보호사 노동권 보장**을 위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전면 개정

 2017
 경비원 일자리 휴무제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활동



공익법 일반

2006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개정 활동

2017 **공익법인법** 개정 활동

2017 **기부금품모집법** 개정안 발의

2018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

Congratulations

공감 15주년 축사ば시다

공감 15주년 **축하 메시지**



뜨겁게 내리쬐는 여름

태양처럼 열정적인 구성원들을 처음 만났던

공감 인권법 캠프를 기억합니다.
빨갛게 물들어가는 가을

단풍 아래에서 법과 인권에 대해 고민했던

자원활동가의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하얗게 쌓인 겨울눈에
구성원들이 먼저 찍어놓은 발자국을
따라가야겠다고 결심한
로스쿨 실무수습 때의 시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늘 그랬듯이 다시 봄이 찾아오고,
공감의 15번째 봄도 함께 찾아옵니다.

한결같은 모습으로 늘 곁에 있는 공감의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은 곳에서 더 자주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서석우**(26기 자원활동가)



공감의 활동가들은 현장의 목소리로부터 고민을 시작했고, 들었고, 어느 작은 자리여도 함께 했고,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고, 고민을 들어줬고, 위로해 줬고, 대안을 만들어 함께 싸워줬고, 마침내 세상이 변하는 그때에도 함께 해 주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의 일원이라면 이러한 공감 활동가들의 모습을 열 번 이상 봤을 거고, 그이들과 다섯 번 이상 말을 섞었을 거고, 세 번 이상 함께 일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15년의 세월 동안 거침없이 달려온,

무소의 뿔처럼 우직하게 걸어온 공감을 마음 뜨겁게 안아주고 싶습니다. 장애인인권에 대해서, 특히 시설과 병원에 오랜 세월 갇혀 지내야 하는 격리된 삶에 권리의 목소리를 안겨준 공감이 고맙습니다.

공감을 이제까지 지켜온 이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봅니다.

고생했어요. 사랑합니다, 공감!

- 김정하(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공감' 구성원인 윤지영 변호사와 제가 자주 만난 곳은 재판정이었습니다. 윤지영 변호사가 함께했기에 저는 재판에서 이기고 지는 것에 구애받지 않고 늘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김수영 변호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두 변호사를 주로 만나는 곳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자회견장이거나 농성장이었습니다. 사회적 참사로 고통당하는 이들의 곁이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피해자지원위원회나 세월호 희생교사 김초원·이지혜 선생님 순직인정 대책위원회, 직장갑질 119와 방송갑질119, 장애인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논의하는 모임 등 이 모든 곳에 윤지영 변호사나 김수영 변호사가 있으면 참 든든했습니다. 두 변호사가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공익법인의 가치를 만들고 지켜온

또 다른 '공감' 구성원들이 사회 곳곳에서 슬퍼하는 자들의 곁에 서 있었고, 변화를 만들어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공감'의 15년을 축하하며, '공감'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공감'의 새로운 날들, '동지'의 마음으로 함께 걷겠습니다.

- **김혜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공감'의 구성원이었기 때문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공감이 처음 활동 때만 하더라도

"전업으로 공익활동을 하는 법률가단체"가 지속 가능할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없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웬만한 로펌에 공익변호사가 있고

전국적으로 80여 명의 공익변호사들이 활동하고 있으니,

공감의 처음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상전벽해입니다.

공감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공감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 역할과 가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공감에서 처음 한 일은 염형국 변호사와 함께 한달 넘게 부안에 머물며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극심했던 사회적 갈등을 주민과 시민사회의 힘으로

해결해 내는 과정의 경험은 지금도 참 생생합니다.

지금은 사익(?)을 대변하는 로펌에 있지만,

돌아보면 공감에서의 이처럼 귀한 경험과 인연이 지금까지 시민으로서.

변호사로서 제 삶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감 구성원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공감의 열다섯 생일을 축하합니다!!!

- 김영수(공감 전 구성원,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염형국		김지림
열다섯 사춘기 소년, 염형국 꿈을 찾아 방황하기 시작하다	1989	부산의 어느 병원 지림이라는 이름의 아이가 태어나다
친구와의 말싸움에서 승리하다	1991	엄마에게 말대꾸를 시작하다
방황의 끄트머리에서 법대에 진학하다	1992	유치원에 입학하다
첫사랑을 만나 결혼 하다	1995	첫사랑을 만나다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군대에 가다	1996	첫사랑과 다른 초등학교에 입학하다
사시 1차 불합격이라는 쓴맛을 맛보다	1999	반장 선거에서 떨어지는 인생의 첫 쓴맛을 맛보다
사법시험에 합격하다	2001	반장 선거에 반장으로 당선되다
스물아홉 청년 염형국 박원순 변호사를 만나 공익변호사의 꿈을 꾸다	2002	중학생 김지림 미래에 대한 꿈을 찾다
국내 최초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을 만들다	2004	열다섯 사춘기 소녀, 김지림 변호사란 무엇인가 고민하다
미국으로 연수를 떠나게 되다	2009	프랑스로 교환학생으로 가게 되다
제1회 변호사 공익대상을 수상하다	2013	로스쿨 입학 시 장학생으로 선발되다
프로보노지원센터 개소하다	2016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다
신입 변호사 채용을 추진하다	2017	스물아홉 새내기 변호사 김지림 공감에 입사하다

2019 공감 15주년을 함께 맞이하다

공감 15주년을 준비하면서 앞으로의 15년을 함께 이야기한다.



2002년초 x월 x일(스물아홉 살의 어느 날)

햇살이 내리쬐는 화창한 오후, 연수원 전체특강이 있었다.

오늘 연사는 아름다운재단의 박원순 변호사님이다.

주제는 '공익변호사는 변호사업계의 블루오션!'

운 좋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에 들어온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다.

암기공부에는 날고 긴다는 사람들이 모여 마치 고등학생처럼 생활하고 있다.

판결문 토씨 하나까지 외워서 쓰는 시험을 본다고 한다.

그런 일엔 영 관심도 소질도 없다. 일찌감치 목표를 '변호사'로 잡아야 할까?

박원순 변호사님은 남들이 다 가려고 하는

판·검사, 대형로펌 변호사는 경쟁이 너무 치열한 레드오션이고,

남들이 가지 않지만 보람되고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한

공익변호사가 이 시대의 블루오션이라고 하셨다.

돈 잘 버는 변호사 혹은 대기업을 변호하는 변호사는 하고 싶지 않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가 하고 싶은 일은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은

사회적 약자들을 옹호하고 국가권력을 감시하는 공익단체 변호사 일이다.

가슴이 뛴다!!

2017년초 x월 x일(스물아홉 살의 어느 날)

햇살이 내리쬐는 화창한 오후, 공감 입사 후 처음으로 주간회의에 참가했다.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공감에 입사하게 된 내게 다들 기대가 큰 것 같다. 들어오자마자 진행하게 된 사건은.

신분을 도용당해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억울하게 구금되어 있었던 외국인을 대리하는 국가배상 소송이다.

언어의 장벽으로 한국인에 비해 취약한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권리에 마음이 쓰인다.

앞으로 공감에서 어떤 사건들을 맡게 될까? 잘할 수 있을까?

변호사가 되고자 로스쿨에 지원할 때의 마음과

졸업 후 어떤 변호사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물음.

그 물음의 끝에 공감이 있었다.

나중은 없다. 지금 당장!

가슴이 뛴다!!





이들은 15년 후에도

같은 공간에서 함께 할 수 있을까?



세상에서 제일 바쁜 공익변호사

황필규 변호사의 하루

06:00 난민심사에서의 '신빙성' 관련 학술논문 마무리를 위해 평소보다 이른 기상. 후퇴하는 판결, 하지만 진지하고 깊이 있는 학자들의 등장. 공부할 게 많다. 인권! 끝이 없기에 끝까지 갈 수 있다는 철학을 다시 되새긴다.

08:00 평소보다 빠르게 출근 준비를 마치고 지하철 행.
 출근길에 보는 인권침해 현장의 뉴스에 절로 한숨이 나온다.
 긴 호흡이 필요하다. 인권변호사가 할 일에는 끝이 없다.

09:00 기사 검색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최근 유엔인권기구 문헌 확인. 기사에 없는 문헌 주요 내용을 번역해 동료들에게 공유한다. 먼저 해야 할 일들이 밀려있지만, 마음이 가면 어쩔 수 없다.

10:00 주말 내내 들어 온 이메일, SNS 처리하기. 여러 네트워크 활동 업데이트하고 국내외 문의와 제안에 답한다.

10:30 밀린 자원활동 문의에 대한 답변 및 채용 관련 추천서 작성. 프랑스, 미국 등에서 온 자원활동 문의와 아시아 등에서 활동하려는 변호사들의 추천 요청을 접하면서 흐뭇해하는 나를 발견한다.

11:30 공감 국제인권센터 설립 준비 및 로스쿨 국제인권 클리닉 강의 준비. 센터 설립, 이번에는 반드시! 지난 학기 클리닉 폐강의 아픔을 딛고 전진!

13:00 버스 타고 사회적참사특조위 세월호참사 관련 실무자 회의로.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상근하지 않는 비상임위원의 한계를 느끼면서도… 끝까지 책임지고 싶다.



14:30 세계변호사협회 9월 서울총회 준비 점검 & 대한변협 국제인권특위 업무 확인. '법원의 국제인권법 적용' 심포지움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한 내용을 대한변협 국제인권특위에 공유한다.

15:00 일주일을 힘차게 시작하는 힐링의 시간, 공감 주간회의! 성폭력, 취약노동 관련 법적 대응 사례를 접하고 궁금한 질문을 쏟아내며 열띤 토론을 한다. 나의 부족함을 채워간다.

17:00 외국인강사 HIV/AIDS검사 관련 국가배상소송 소송서류 검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국가배상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나라 사람도 그 나라에서 국가배상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리고 상대방은 이 일이 너무 오래 전의 일이라고 주장하겠지. 산 넘어 산이다. 하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가야 할 길.

18:00 야근하는 구성원들과 편안한 저녁 식사. 소식해야 맑은 정신으로 일하는데 또 과식…. 배에 쏠린 피를 머리로!

19:00 영국법원 탈북아동 난민사건 제출용 전문가 의견서 수정 보완. 탈북자는 남한국적자이기 때문에 난민이 아니라는 논리를 깰 그 날을 위해!

21:00 급하다 급해! 빨리 퇴근하기 위해 이것저것 몰아서 일하기.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난민법 개정안에서 내가 맡은 부분을 정리한다. 해외입양인과 아프리카판 코피노 가족정보 찾기 사례 정리 등등 밀린 일이 너무 많다.

23:00 집에 돌아와 미처 보지 못했던 자료들을 읽으며 하루 정리하기.
단지 외국에서 생긴 일이라는 이유로 기업의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는 라오스댐 붕괴 사고의 희생자 가족들과,
2년 가까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스텔라데이지호 사건 피해가족들 생각에 괴로워하며 자료를 뒤적인다.
좀 더 해야 하는데. 좀 더 잘 할 수 있는데…. 몸이 하나고 하루가 24시간인 것이 너무 아쉽다.

24:00 내일을 위한 준비.
잠자리에 들려고 침대에 누웠다.
잠시 휴대폰 기사를 훑어보는데 구성원들과 공유하면 좋을 기사를 발견했다.

빨리 내일 아침이 와서 구성원들에게 기사를 읽어주고 싶다. **빨리 내일이 왔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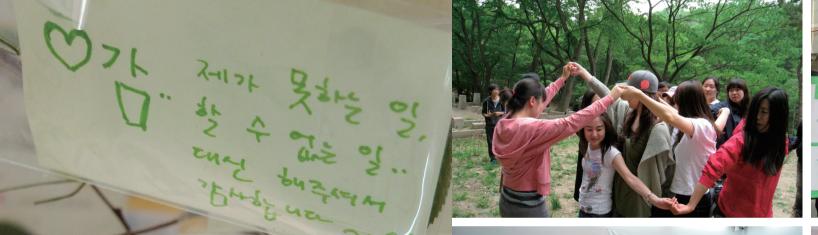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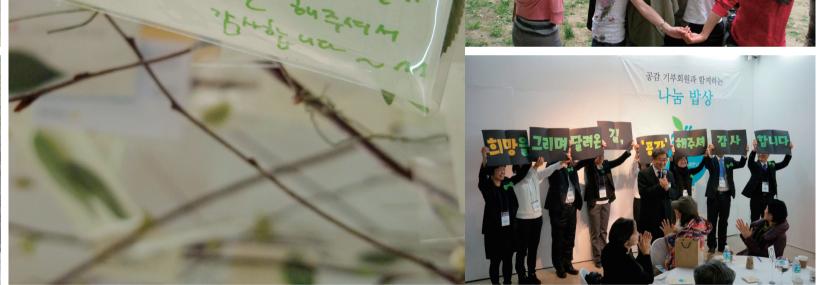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회



공감하는 만큼 따뜻해집니다.

윤재윤 이사 🛭



공감, 우리의 인권을 부탁해.

한상희 이사 ■



공감, 벌써 15년? 아니 겨우 15년! 공감은 주욱갑니다. 150년 아니 천년만년이라도, 일감 부족으로 목적 소멸하는 그날까지 사람과 함께!

전수안 이사장



힘이 없어도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서 희망과 용기가 생기게 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열적으로 힘쓰는 공감의 일꾼들에게 진정한 격려와 응원을 하기 위해 동참했습니다.

김영준 이사 ■



공감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리 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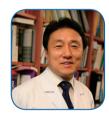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이 되는 사람들에게 공감합니다.

문영화 이사



소외받는 사람들과 공감하는 일이 인권의 시작입니다. 올해도 그늘지고 추운 일과 가장 먼저 공감하는 인권재단 공감이 될 것입니다.

신경숙 이사



공감은 다른 사람의 눈과 귀로 보고 듣고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느끼는 신비한 경험이다.

홍진표 이사



약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소중한 친구가 될 수 있도록 공감은 더욱 노력하고 발전하겠습니다.

강승수 이사



'공감'하는 사람, '공감'을 위한 사람으로 가득찬 따뜻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어 봅니다.

김유니스 이사



목소리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고 힘없는 사람들의 힘이 되어 함께 걸어오신 15년… 축하합니다. 공감의 친구들 고맙습니다.

변연식 이사



공감과 함께 뛰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데이빗 워터스 이사



열다섯! 꽃다운 공감과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사춘기를 지나 더욱 성숙하고 발전해가는 공감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영선 감사



꽃 피면 달 생각하고 달 밝으면 술 생각하고

꽃 피자 달 밝자 술 얻으면 벗 생각하네

언제면 꽃 아래 공감에서 완월장취(玩月長醉)하려뇨

오종석 감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성원

공익법 활동이 공감의 일이라면… 기부회원님들께 감사하는 것 또한 공감의 일입니다. 늘 고맙습니다!!

안주영

나는 커서 무엇을 할까? 여전히 조금씩 자라면서 꿈을 꿉니다. 공감 15년, 더불어 사는 세상을 향한 흔들림 없는 외침은 계속됩니다.

황필규

긴 시간 함께 공감하고 힘이 되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살겠다는 마음가짐 변치 않겠습니다.

윤지영

열다섯 공감이 드리운 나무 그늘 아래에서 다가올 15년을 그려봅니다. 더불어 울창한 숲을요.

김수영

첫 마음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신옥미

가감 없는 인식과 차가운 분노와 끝없는 낙관과 가벼운 발걸음으로, 날마다 출발합니다. 15년 동안 매일 함께 출발해 주신 당신께 감사합니다.

차혜령

'세상은 과연 좋아지고 있는가?' 의심이 될 때, 10년 전을 돌아보며 5년 후, 15년 후를 그려봅니다. 여러분 덕분에 절망하지 않고 힘을 냅니다. 감사합니다!

장서연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 앞으로도 쭉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김지림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된 곳 공감. 아직 배울 게 많다는 것도 행운이지 싶습니다.

박영아

응원해 주시는 기부회원님과 활동가님들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고맙습니다.

임기화

공감 15주년, 모두가 함께해주신 기부회원님, 활동가님들 덕분입니다.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기부회원

강건우	강경두	강규영	강균하	강기목	강기영	강기욱	강기탁	강동환	강동환	강두한	강문혁
강미선	강방권	강서영	강서영	강성대	강성원	강세라	강세희	강수정	강승수	강승연	강신섭
강신영	강신욱	강연성	강영규	강영준	강용현	강윤아	강윤희	강율리	강은영	강재상	강정은
강지용	강지현	강진영	강찬	강태성	강태호	강현규	강현정	강환이	강효리	강희성	강희철
고건덕	고경란	고나무	고동선	고동희	고병원, 조	<u> </u> 현지	고석필	고성민	고슬옹	고승정	고연금
고원용	고원형	고윤정	고은아	고진희	고찬욱	고태헌	고태호	고학수	고한나	공민주	곽경민
곽명진	곽서윤	곽성자	곽순화	곽시은	곽우섭	곽원석	곽은비	곽인찬	곽현설	구금회	구나영
구슬기	구윤호	구인호	구자은	구현주	구혜진	권경엽	권기섭	권기현	권기호	권미영	권보미
권순엽	권오곤	권오민	권오직	권용선	권용숙	권웅기	권이선	권일	권일	권정순	권정훈
권준율	권지희	권진영	권철옹	권태섭	권태윤	권혜은	권혜진	권회	금영은	기우용	김가연
김경림	김경미	김경미	김경미	김경민	김경선	김경아	김경연	김경옥	김경진	김경태	김고운
김과이	김관철	김광래	김광배	김광영	김광욱	김광현	김교신	김구열	김국제	김권회	김권희
김규미	김규식	김기남	김기남	김기덕	김기연	김기영	김기호	김기호	김나경	김나라	김나연
김나영	김나윤	김난연	김남국	김남연	김남우	김남일	김남희	김다영	김다형	김다흰	김대원
김대중	김덕여	김도연	김도완	김도원	김도진	김도희	김동건	김동관	김동욱	김동율	김동한
김동현	김동현	김동현	김동휘	김두현	김락현	김롱헌	김룡	김루아	김린	김명수	김명숙
김명원	김명준	김명호	김목홍	김문	김미경	김미라	김미리	김미선	김미선	김미연	김미연
김미영	김미영	김민관	김민국	김민석	김민성	김민아	김민영	김민욱	김민재	김민정	김민정
김민조	김민철	김민혁	김범준	김범진	김병구	김병기	김병오	김병욱	김병욱	김병인	김보영
김보현	김복기	김봉진	김상률	김상미	김상민	김상용	김상은	김상일	김상준	김상준	김상헌
김상현	김샛별	김서현	김석현	김선진	김선태	김선희	김성경	김성기	김성길	김성수	김성은
김성준	김성호	김성호	김성호	김성환	김성효	김성훈	김성희	김세명	김세이	김세진	김세호
김솔아	김솔지	김수민	김수민	김수빈	김수열	김수용	김수정	김수정	김수정	김수지	김수지
김수진	김수진	김수호	김숙희	김순정	김순진	김순희	김승아	김승지	김승진	김승현	김승현
김승현	김승현	김승환	김시내	김시정	김아름	김아영	김애진	김연정	김연주	김영경	김영덕
김영란	김영민	김영선	김영수	김영옥	김영욱	김영은	김영은	김영주	김영주	김영준	김영후
김예린	김예영	김예원	김예진	김옥향	김옥희	김완모	김용득	김용만	김용비	김용우	김용진
김용희	김우연	김우중	김우희	김웅열	김원규	김원민	김원욱	김원천	김유리	김유성	김유진
김윤경	김윤선	김윤정	김윤주	김윤진	김윤희	김은숙	김은아	김은영	김은정	김은정	김은지
김은혜	김이랑	김이석	김이슬	김인석	김인숙	김인택	김재관	김재승	김재원	김재원	김재원
김재원	김재종	김재춘	김재현	김재환	김재훈	김재훈	김정근	김정란	김정린	김정민	김정민
김정선	김정아	김정예	김정익	김정일	김정주	김정진	김정혜	김정화	김정환	김정희	김정희
김조헌	김종민	김종보	김종순	김종욱	김종일	김종철	김종하	김종현	김종휘	김좌진	김주동
김주미	김주옥	김준석	김준수	김준연	김준우	김준우	김준태	김준혜	김지건	김지림	김지선
김지선	김지양	김지완	김지원	김지인	김지향	김지형	김지혜	김지혜	김지효	김지훈	김진
김진	김진국	김진석	김진숙	김진아	김진아	김진영	김진영	김진옥	김진옥	김진우	김창조
김창환	김창환	김채환	김철민	김청송	김춘수	김태성	김태연	김태현	김태형	김포그니	김필수

김한규	김한규	김한석	김해성	김해정	김행곤	김현경	김현미	김현아	김현영	김현이	김현정
김현진	김형동	김형로	김형옥	김형우	김형준	김혜란	김혜림	김혜미	김혜민	김혜숙	김혜승
김혜영	김혜인	김혜인	김혜정	김혜희	김호성	김호중	김호철	김홍율	김화랑	김화령	김회연
김효국	김효권	김효민	김효숙	김효진	김효진	김훈식	김희경	김희경	김희수	김희연	김희정
나승철	나영숙	나은지	나희원	남경호	남광열	남궁솔	남기연	남기철	남병영	남승한	남연진
남영	남유정	남윤미	남직수	남찬섭	노귀선	노로	노명호	노병권	노성철	노수현	노승희
노연희	노영주	노창호	노현국	노현웅	노혜련	도명준	도재형	라홍석	류다솔	류명희	류민희
류선호	류신환	류연철	류영재	류원호	류정선	류정아	류제성	류준세	류향렬	류현진	류혜정
류호성	마석우	마순	맹남주	명종진	명한석	모광희	목영준	문경민	문경순	문규환	문기돈
문미란	문서리	문선영	문성원	문연진	문영화	문유민	문윤경	문은희	문준영	문지니	문지석
문지은	문흥안	민경호	민경홍	민동섭	민선영	민예은	민유나	민창욱	민한기	민혜정	박가현
박갑주	박경배	박경수	박경웅	박경주	박경철	박귀천	박규도	박규림	박근	박금주	박기례
박기출	박기현	박노민	박대협	박동숙	박래형	박만선	박명희	박미희	박민경	박민욱	박병조
박병준	박병한	박봄빛누리	박봉일	박상배	박상봉	박서진	박서현	박선영	박선영	박선영	박선옥
박선희	박성구	박성례	박성영	박성희	박세웅	박세원	박세진	박세진	박세진	박소연	박소영
박소영	박수명	박수민	박수연	박수영	박수진	박수찬	박숙란	박숙미	박순덕	박신애	박신애
박신영	박아롱	박아름	박연수	박연희	박영란	박영립	박영수	박영숙	박영아	박영환	박영희
박용대	박용식	박우진	박원종	박윤정	박은경	박은경	박은미	박은영	박은영	박은정	박은주
박은진	박이정	박인석	박재성	박재우	박재홍	박재희	박정교	박정명	박정민	박정신	박정원
박정은	박정헌	박정현	박종록	박종욱	박종혁	박주민	박주희	박준석	박중원	박지선	박지영
박지현	박지혜	박지호	박지환	박지훈	박진	박진동	박진석	박진영	박진호	박진호	박진호
박찬우	박찬종	· · 박철완	박춘희	박평아	박학수	박한희	박해영	박현규	박현선	박현수	· - 박현우
박현주	박형수	박혜경	박혜련	박혜원	박호근	박호황	박화숙	박효원	박희문	반미영	반재용
방경희	방서은	방선영	방승빈	방승호	바연주	방주현	배대용	····· 배삼희	배상영	배영근	배영희
배유미	배은희	배의철	배정호	배지영	배진수	배채영	배현아	배혜선	백가윤	백경미	백나라
백도라지	백민	백범석	백봉협	백성진	백성현	백승영	백승희	백의자	백인욱	백일하	백종근
백종수	백지예	백지훈	백진영	변달석	변수양	변연식	변영선	변재원	부종욱	부지환	서기호
서동운	서미애	서민경	서범욱	스트 기 서상범	서상원	서석우	서선영	서순아	서승옥	서아인	서여정
서영지	서유진	서은석	서은영	서은혜	서정현	서정희	서지애	서지은	서지화	서진환	서창효
서채완	서현선	서희원	석근배	석대건	석영화	선우아정	선정규	선혜숙	설승은	성갑선	성계숙
성군희	성기옥	성순모	성영광	성유학	성정모	성창근	성창익	소민호	소순무	소영현	소윤민
소재욱	소지민	손도희	손명호	손민아	손병욱	손봉기	손승민	소승현 손승현	소년 T 손아람	손충모	손학렬
는 " ' 손현정	송경근	송다솜	송동현	송명훈	송미지	송민경	송민수	송민주	송상교	송상윤	송수경
송시현	송아람	송연정	송영훈	송오섭	송주연	송주희	송준현	송지우	송지은	송지현	송찬섭
송창영	송치영	송태협	송하경	송해구	송현정	신가영	신건호	신경숙	신국식	신권	신대연
신대희	신동석	신동수	신동화	신미경	신민경	신병주	신상아	신선경	ᆫᅥᅥ 신성식	 신성호	신소현
신수경	신승훈	신아영	신영욱	신원기	신유림	신윤진	신윤호	신은섬	신은숙	신은진	신정림
신종균	신주헌	신진화	신창용	신채흔	신하윤	신한나	신혜성	년혜영 신혜영	 신혜원	신효숙	신훈민
심광택	심나리	심석태	심성우	심제원	심지영	심해용	심형보	심혜섭	심희정	안경환	안기순
안명주	안미경	안병국	안병학	안상일	안선주	안성식	안소연	안승택	안시야	안시헌	안영진
안영춘	안영환	안예하	안오성	안윤교	안윤빈	안은지	안이수	안인걸	안정원	안지해	안진
안진걸	안진우	안태환	안한진	안혜령	안혜림	안혜정	안효광	안희철	양가을	양동석	양라희
양서현			양소민	양영모	양옥수	양윤하					양정하
당시언 양준희	양선미 양지연	양세웅 양지원	양지은	양창영	양현아	양홍석	양인수 양희모	양재선 양희준	양정숙 양희진	양정임 어정원	어혜진
영군의 엄규숙		영시년 여광수		여운국	여지은			명의 면경용			
	엄혜진 여즈미		여연심 여지히			연제봉 여처	연제헌 여호서		염경주 ㅇ겨미	염규상 O기하	염도원 이나격
염신연 오미숙	염주민 오미현	염지원 오민영	염지희 오병두	염찬우 O사지	염찬주 O사혀	염철 O서즈	염흥섭 O서시	오갑수 O서여	오경민 오성택	오기환 오세희	오나경 ㅇㅅ저
				오상조	오상현	오선주 ㅇㅇ지	오성심 ㅇㅇ저	오성열 ㅇ으처			오수정 으조서
오승민	오신영	오연희	오영신	오영아	오유미	오유진	오은정	오응철	오이석	오재림	오종석

오종태	오증식	오지원	오지은	오진숙	오충진	오형석	온채희	왕명숙	왕미양	왕정희	용경미
용성진	우람	우은주	우정열	우주경	원명진	원민경	원종열	위아래	위은진	유덕기	유동철
유동훈	유록수	유병성	유성애	유성예	유승룡	유승민	유승민	유시현	유연실	유영기	유영일
유영훈	유용준	유욱	유원규	유은수	유인선	유재광	유재원	유재원	유재철	유정인	유정화
유정훈	유지현	유지호	유찬호	유혜연	유혜정	유효영	육태순	윤규상	윤규성	윤덕로	윤덕찬
윤미영	윤민화	윤병우	윤보미	윤석준	윤선주	윤성운	윤성철	윤세민	윤세종	윤소정	윤승희
윤신승	윤영미	윤용호	윤원근	윤은정	윤자영	윤재실	윤재윤	윤재훈	윤재훈	윤정숙	윤정연
윤정원	윤정향	윤정희	윤지숙	윤진수	윤진호	윤해림	윤현우	윤홍식	윤홍원	윤홍중	윤화영
윤효연	은탁	은현호	이가양	이가연	ㅡ ㅡ 이가현	이강원	이경민	이경아	이경율	이경은	이경은
이경준	_ · 이경희	이계수	이계언	이관수	이구	이국희	이권엽	이귀보	이규범	이금화	이기선
이기연	이기화	이길란	이길재	이나래	이난영	이다영	이대근	이동성	이동주	이동준	이동진
이동헌	이동훈	이두진	이명숙	이명신	이명익	이명자	이문희	이미란	이미숙	이미자	이미지
이민순	이민영	이민재	이범주	이범휘	이병권	이병래	이병문	이병민	이병주	이보람	이보람
이보완	이보윤	이보형	이본영	이봉원	이봉재	이봉준	이봉현	이상국	이상률	이상민	이상민
이소봉	이소년 이상석	이소이	이상수	이상아	이상언	이상원	이상중	이상필	이상현	이상희	이상희
이선기	이선민	이선순	이선응	이선임	이선형	이선희	이선희	이성민	이성원	이성호	이세리
	이세인	이소담	이소아	이소연	이소영	이소영			이수민	이수연	이수연
이세영 이수영	이세인 이수정	이소님 이수진		이오현 이수현		이소형	이송	이송준		이수인 이슬비	
			이수현	–	이수형		이수희	이숙현	이순혁		이승수
이승우	이승원	이승진	이승한	이승한	이승헌	이승훈	이시정	이신영	이심가은	이안소영	이언주
이에린	이여름	이연경	이연순	이연정	이영근	이영남	이영래	이영옥	이영주	이영호	이영희
이예지	이예찬	이예화	이용구	이용세	이용표	이우승	이우진	이우환	이원규	이원재	이유경
이유열	이유영	이유준	이유진	이유철	이윤구	이윤성	이윤정	이윤정	이윤정	이윤주	이은숙
이은숙	이은실	이은영	이은영	이은영	이은일	이은정	이은주	이은주	이은지	이은희	이의석
이의진	이인규	이인숙	이일	이장호	이재근	이재명	이재성	이재승	이재승	이재엽	이재욱
이재한	이재형	이재훈	이정국	이정남	이정란	이정민	이정민	이정민	이정복	이정애	이정은
이정이	이정진	이정호	이정환	이정훈	이제철	이종미	이종수	이종오	이종은	이종희	이주언
이주영	이주창	이주한	이준범	이준석	이준석	이준숙	이준응	이준일	이준환	이중훈	이지영
이지은	이지행	이지행	이지현	이지혜	이지혜	이지환	이지환	이진숙	이진숙	이진우	이진우
이진주	이찬진	이찬호	이창석	이창형	이창훈	이채식	이채원	이채원	이채현	이철기	이총희
이춘재	이탄희	이태상	이태정	이태호	이태훈	이하정	이한본	이해원	이향재	이혁재	이현수
이현승	이현자	이현종	이현주	이현주	이형균	이형근	이형미	이형미	이형석	이형자	이형직
이혜리	이혜영	이혜온	이혜욱	이혜원	이혜윤	이혜인	이혜정	이호	이호식	이호인	이호재
이호정	이호중	이호철	이호철	이홍기	이화영	이화영	이화정	이황희	이효건	이효경	이훈희
이희경	이희만	이희섭	이희숙	이희순	이희승	이희승	이희정	이희찬	임경아	임규원	임남규
임대빈	임대우	임대원	임미진	임병규	임선영	임선영	임선주	임세와	임수경	임수희	임승순
임영미	임예지	임용	임용규	임원범	임익현	임재만	임재성	임정덕	임정순	임중은	임진홍
임창현	임채민	임채복	임통일	임현령	임현묵	임형남	임혜원	장건	장경욱	장교식	장달리
장도중	장미	장미희	장민주	장민환	장보람	장석우	장선영	장선희	장세명	장수민	장승희
장영석	장옥희	장원	장유식	장윤경	장윤석	장윤정	장윤주	장윤주	장윤호	장은경	장은영
장재영	장정환	장지숙	장철익	장품	장해강	장혜라	장효정	장훈	전경태	전민성	전민식
전병규	전상배	전상윤	전성관	전성지	전수안	전아람	전영록	전용범	전우정	전원열	전원진
전은경	전재우	전정현	전지성	전찬서	전창률	_ · - 전효숙	정가영	정경민	정경애	정경영	~ ~ ~ 정계선
정계현	정고은	정광임	정광현	정규빈	정규헌	정낙식	정남순	정다은	정다정	정다훈	정대일
정미화	정민경	정민영	정병기	정병민	정병삼	정병수	정병화	정서희	정선호	정성용	정성윤
정성태	정성호	정성훈	정세진	정소라	정소망	정소연	정소연	정소연	정수미	정수정	정순문
정순형	정아름	정아선	정연욱	정연주	정영선	정영선	정영훈	정용승	정용운	정원락	정원진
정윤선	정윤원	정윤주	정은령	정은숙	정은아	정은영	정은정	정인	정인섭	정인흥	정일용
정재건	정재욱	정재욱	정재필	정정국	정정진	정정환	정정훈	정제훈	정종호	정준학	정지웅
onit	0개국	0/11-1	0112	001	00'L'	〇〇世	〇〇正	이게正	001	OLT	0/15

정지하	정지훈	정진	정진규	정진수	정진숙	정진화	정채영	정철	정춘석	정해송	정행주
정현철	정형모	정혜민	정혜선	정혜진	정호엽	정홍조	정화인	정희경	정희원	정희정	정희진
조경현	조광희	조규호	조대연	조동완	조문성	조문숙	조미연	조미희	조범석	조병규	조석필
조선영	조선영	조성숙	조세현	조수민	조수진	조숙현	조아라	조연희	조영관	조영신	조영언
조영옥	조영희	조용기	조용수	조용하	조우현	조원희	조유경	조은정	조은진	조이여울	조익섭
조장천	조재령	조정은	조정현	조주영	조준호	조초희	조한진	조현미	조현미	조현복	조현용
조현욱	조현주	조형순	조혜련	조혜영	조혜인	조혜정	조혜주	조홍택	조효민	조흥식	주기영
주두수	주선영	주선하	주숙희	주신영	주영삼	주영진	주지원	주형진	지박	지성호	진갑현
진양화	진형혜	차강진	차규근	차미령	차민형	차승호	차영숙	차용선	차은주	차정숙	차정희
차지훈	차진세	차태진	차현미	차혜령	채성희	채양희	채태아	채희정	천경미	천경송	
천만우	천정훈	최가영	최강욱	최건섭	최결	최경자	최계영	최광훈	최규석	최규진	최다빈
최달옹	최대훈	최문긍	최문석	최미영	최민량	최민주	최민형	최병선	최보라	최서연	최서연
최서훈	최서희	최석균	최선주	최성규	최성보	최성일	최세현	최소연	최승철	최아람	최영규
최영민	최용	최용범	최용직	최용혁	최용호	최웅영	최원근	최원석	최원호	최유	최유리
최유진	최유하	최윤경	최윤나	최윤석	최윤수	최은배	최은숙	최은주	최의실	최인선	최재신
최재홍	최정규	최정식	최정옥	최정은	최정은	최정인	최정환	최종선	최종환	최준근	최준성
최준우	최지선	최지영	최지은	최지현	최진영	최창민	최창호	최철기	최혁재	최현오	최형석
최형식	최호정	최환택	최효명	최희정	추교항	추민경	추은정	추혜윤	탁선호	편선정	표슬비
하나영	하성우	하승수	하양진	하정민	하정영	하준영	하희봉	한경수	한국염	한기영	한명득
한미미	한민영	한민희	한병준	한보경	한상률	한상만	한상엽	한상희	한성민	한수경	한승석
한승표	한애라	한연규	한영주	한원횡	한이경	한재호	한종섭	한중호	한지수	한지연	한지영
한진숙	한창견	한창남	한창완	한창훈	한철웅	한태윤	한학수	한화숙	한효성	한효은	함동호
함영선	허나눔	허누리	허선희	허세진	허수희	허오영숙	허인회	허정	허정집	허창립	허치림
허태정	현우영	현지원	현지현	호승진	홍경선	홍경화	홍금순	홍대운	홍두의	홍민	홍성민
홍성수	홍성진	홍세화	홍수정	홍수희	홍승혜	홍아현	홍영재	홍완희	홍유미	홍윤선	홍은기
홍정기	홍정아	홍주희	홍지수	홍지은	홍진표	홍초롱	홍혜선	황가혜	황경모	황규인	황매화
황보인구	황성아	황승옥	황승희	황신애	황연재	황영명	황예랑	황용기	황원규	황의홍	황인이
황재호	황준협	황지섭	황지택	황지현	황채주	황필규	황현	황현이	황현정	황형준	황혜영
황혜진	황호연										

EuniceKyongheeKim	KenCho	LIMHYUNSOO	PAEK WONSUN	Patricia Goedde
Seo Olivia Seunghee				

재)성심수도회	(재)화우공익재난	(수)공旨
(주)사이로직	(주)센티널테크놀로지	(주)스퍼
(주)엠에스전자	(주)이레테스트	(주)피인
고려대소수자위원회	김.장 법률사무소	명노창기
민변 대전지부	법무법인 다온	법무법인
법무법인 폴라리스	법무법인 한누리	법무법업
법조공익모임 나우	변호사 박숙란 법률사무소	변호사
나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선	사단법업
네탁전문점향기	시너지팩	아시아
우물한상전_이세은	원곡법률사무소	유스티터
대단법인 동천	지안법무사합동사무소	카카오_

(주)공달학원 (주)미래에너지 페이스2.0 (주)에이치엠인터내셔날 앤에스네트웍스 UNHCR 당기타공방 목동순풍한의원 d인 덕수 법무법인 맥 d인(유한) 지평 법무법인L.K.B & Partners l 변찬우 법률사무소 사단법인 나눔과이음 사단법인 한결 법인 인하우스카운슬포럼 l 대평양난민인권네트워크 에이캐드 인권연구소 '창' |E|0| 2_피플펀딩 한샘교회

단위: 원

한눈에보는 2018년 **공감 살림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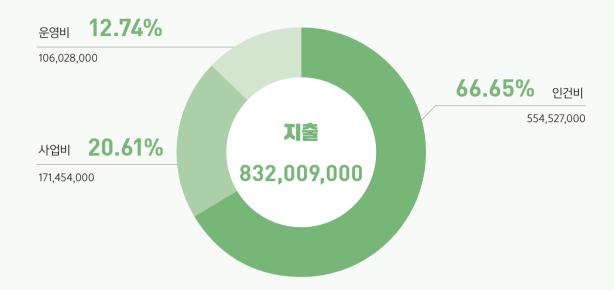
단위: 원





수입 항목에서 '이자 및 기타' 수입은 무엇인가요?

예금이자와 2018년 공감 내부 상황을 진단하기 위해 진행된 '2018 서울 NPO지원센터 조직변화상담실' 프로젝트 비용, 그리고 인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교육·중개	14,597,000
공익변호사 자립지원	103,330,000
법률교육/지원	2,075,000
소송 지원	5,777,000
인권법캠프	16,090,000
포럼	1,768,000
연구조사	9,960,000
회원 관리	16,470,000
홍보	1,387,000
소 계	171,454,000

운영	비
복리후생비	20,582,000
세금과공과	22,021,000
도서인쇄비	17,686,000
지급수수료	11,429,000
건물관리비	7,920,000
지급임차료	3,961,000
사무실 유지비	22,429,000
소 계	106,028,000

지출 항목에서 인건비 비중이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감 변호사의 활동 = 공감의 사업'입니다. 공감은 법률지원활동에 대한 수임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전업 공익변호사 활동을 위한 인건비는 공감 고유의 활동을 위한 것입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희망**을 전해 주세요.



장애인, 난민, 이주여성, 홈리스, 성소수자 등 세상 주변부에 선 사람들의 삶, 바로 그 자리에 뛰어가 법을 말하고 법을 바꾸고자 합니다.

공감은 희망을 그리는 길 위에 있습니다.

소외된 우리 이웃들이 잠시 잃었던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그 희망을 응원해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희망을 전해 주세요. 작은 나눔이 우리 이웃에게 큰 힘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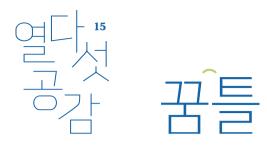
정기 후원 신청

홈페이지 www.kpil.org (CMS 납부 신청 가능)

이메일 gonggam@gmail.com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공감에 보내주시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에 근거하여연말정산 시 비용 인정 및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Ⅰ 기부금 영수증은 1년 동안의 기부액을 합산하여 이듬해 1월 초에 우편 발송되며, 별도 발행도 가능합니다.
- │ 2014년 귀속 기부금 영수증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Ⅰ 공감 기부회원께는 공감이 발행하는 연간보고서와 온라인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15주년 기념 자료집

발행일2019년 4월발행인전수안

발행처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길 29-6(원서동, 북촌창우극장 3층)

T) 02.3675.7740

F) 02.3675.7742

E) gonggam@gmail.com

www.kpil.org

디자인 디자인스튜디오 다다름

